

작년 광주 자동차 생산량 56만6천대 '역대 두번째'

기아차 51만3천대·GGM 5만3천대 스포티지·캐스퍼 등 주력차종 선전 GGM 수출 확대...5만6천여대 목표 시, 미래차 부품 제조 고도화 지원

지난해 광주지역 자동차 생산량

기아 오토랜드 광주

생산 51만3000대

※ 스포티지·셀토스 등 내수 18만1000대, 수출 33만2000대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5만3000대

※ 캐스퍼 내수 4만3000대, 수출 1만대

지난해 광주지역 자동차 생산량이 56만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로 국내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주력 생산차종인 스포티지와 셀토스, 캐스퍼(EV) 등이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51만3000대(내수 18만1000대, 수출 33만2000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5만3000대(내수 4만3000대, 수출 1만대) 등 총 56만6000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23년도 생산대수 58만6000대보다 1만9000대(3.3%) 줄었던 것이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부품계열사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여파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생산·수출 대수는 △스포티지(21만610대·13만5367대) △셀토스(15만9965대·9만7011대) △봉

고트릭(7만9310대·3만9428대) △쏘울(5만9937대·5만9937대) △버스/군수(3960대·374대) 등 총 51만3000대를 생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캐스퍼(생산 5만3029대·수출 1만596대)를 생산했다.

올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역 주력 생산차종인 스포티지, 셀토스, 캐스퍼(EV) 등이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올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 중인 캐스퍼(EV)는 수출지역이 64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도 생산량에 비해 3800대(7%)가 증가한 5만6800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 조립공장에서 캐스퍼 일렉트릭과 캐스퍼가 출고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도 올해 신차가 생산에 들어가는 등 지역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광주지역 완성차 제조공장에서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함에 따라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액도 개선, 신규 일자리도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완성차 제조공장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부품업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부품 제조 고도화 장비를 신규로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전기차(EV)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자동차산업

이 전기차 등 미래차 시대로 급격히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광주의 자동차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며 "올해도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더 따뜻한 민생경제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형일자리 GGM 노조 파업... 지역경제 우려

노조 "탄압 지속" 부분파업 돌입 주주단 "상생협정서 범위 벗어나"

국내 1호 노사 상생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공장 가동 이후 처음으로 노조 간부에 이어 조합원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경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GGM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 일부 조합원은 이날 오후 12시20분부터 4시20분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파업의 책임은 사용자, 광주시,

주주단이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노조탄압'을 지속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노사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권오산 국장은 "사측은 쟁의기간 GGM 입구 주차장 외벽에 선전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철거하는 등 노동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점심시간 선전물 교부도 상생협의체 팀장이 방해했다. 이것은 명백한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노조측 입장을 대변했다.

사측은 노조의 부분파업을 대비하기 위

해 일반직렬 직원 108명을 대체 인력으로 준비해 둔 상태로 이들은 사전 직무교육 및 건강검진을 마쳤다. 이날 투입된 대체 인력은 총 60여명으로 공장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말 캐스퍼 전기차의 유럽 수출이 시작됐고 오는 2월 일본 수출을 위한 시험 생산이 있을 예정으로 파업이 지속될 경우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GM은 지난 2019년 9월20일 출범한 자동차 생산 합작 법인으로 자본금 2300억원은 36개 투자자와 기관에서 참여해 모았다. 483억원을 출자한 광주시

(21%)가 1대 주주고 2대 주주는 437억원을 출자한 현대자동차(19%), 3대 주주는 광주은행(260억 원·11.3%)이다.

GGM은 출범 당시인 2019년 1월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체결했다. 해당 협정서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는 GGM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협의하고, 매년 임금인상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노조, 무파업' 규정은 없지만 임금 상승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결정은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도록 돼 있다. 임금이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그 이유다. 단 사측은 적은 노동시간과 주거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상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동 3권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GGM의 정체성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보다 '헌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에 GGM의 1대 주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김성진 원장은 최근 SNS 글을 통해 "노조의 요구 사항들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경영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은 언제든지 투자를 철회할 수 있고 채권단의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또 경영진도 배임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병하·박소영 기자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0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